

경남도민신문

HOME > 뉴스 > 경제

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업,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 펼쳐

김영찬기자 | 승인 2021.08.04 18:12 | 10면

농업인 인명피해 예방·재산권 보호 위해 시설물관리에 최선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의령군 지역내 답 4279ha 중 72% (3074ha)의 농지에 대해 수해 대비 총165개소의 저수지, 양·배수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했다.

지사에 따르면 그 중 양수장 및 배수장 74개소는 금년 동절기에 집중 점검 및 보수해 영농편의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현재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저하에도 양수장 임시대책을 통해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부	장	지사장	결
김영찬	78855		재

또한, 지난 7월5일부터 7월 9일까지 의령지역에 약 3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나, 의령지사가 관리하는 35개 배수장을 적기 가동해 농경지 침수를 최소화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된 배수장이 설치된지 평균 22년에 이르고 있어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존 배수장의 배수용량 증대, 배수로 확장 등 시설보강이 절실하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박성수 지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와 농업기반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농경지 자연재해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농업인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